

# ‘지역 화폐’로는 내수 못 살린다

## 경제포커스



김홍수  
논설위원

가난한 지자체 간 경쟁 여력 차이 탓에 지역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지역 화폐 사용처가 학원·병원 등 원래 써야 할 곳에 집중돼 추가 소비 유발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 불황은 사회 구조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의는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 중앙년층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을 내수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고령층

경제성장 95% 수출에 의존  
관세전쟁 탓 수출 비상  
새 정부 1과제는 ‘내수 살리기’  
내수 산업, 수요 기반 키워야

자산의 세대 이전 촉진, 증시 밸류업을 통한 금융 자산 비율 확대 등을 내수 부양을 위한 구조 개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정년 65세 연장보다는 기업 단위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서 손자 세대의 교육, 육아, 결혼 자금으로 쓸 경우 2억~3억원 증여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엔 부동산, 자산을 거세세를 낮춰 부동산에 묶인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정책 측면에선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진 건설업 회생이 급선무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철강·시멘트 등 건자재뿐 아니라 이차, 인테리어, 음식점 등 다른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내수 산업이다. 고용 근로자가 200만명을 웃돌 정도로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건설 경기 침체 탓에 3월 중 건설 부문 고용이 1년 전보다 18만5000명이나 줄었다.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미분양 아파트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업장 정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표적 내수 산업인 관광·의료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관광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웠고, 이것이 내수 진작과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관광경쟁 심설, 외국인 면세 절차 간소화, 외국 저가 항공사 지방 노선 신설 등이 정책 효과를 봤다. 연 600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엔 3600만명으로 폭증했다. 그 결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음식·숙박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인재를 모여 있는 의료 분야를 내수 산업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세우거나, 관광과 연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환이 경제로는 민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98] 바람에 실려 휘날린다네

## blowing in the wind

“네 노래는 꼭 치과 벽에 걸린 유화 같아(Your songs are like an oil painting at the dentist’s office).” 밥 딜런(티모테 살라메 분)은 존 바에즈(모니카 바바로 분)의 면전에서 그녀의 노래를 이렇게 평한다. 존은 기가 차지만 이렇게 당돌한 밥이 싫지는 않다. 밥의 조언은 힘을 빼라는 거다. “넌 곡 쓰는 데 너무 힘을 쥐(You try too hard. To write).” 밥 딜런 전기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A Complete Unknown: 2024·사진)’의 한 장면이다.

밥은 존의 침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널브러져 누워 기타를 튕기며 노래한다. “얼마나 많은 목숨이 죽어 아리게 되려나. 이미 너무 많이 죽었음을. 친구여, 그 답은 바람에 실려 휘날린다네(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얼마나 많은 포화가 쏟아져야 영원한 종전이 오는지, 사람은 몇 번이나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몇 번을 울려다봐야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는지, 밥은 그 모든 답이 바람에 실려 휘날린다고 노래한다. 도저히 닿지 않을 것 같은 진리가 이미 바람 속에서 나부끼고 있으나 인간은 잡지 않는다고.

존은 힘을 다 빼고도 할 말을 빼곡하게 넣어 부르는 자유로운 밥의 모습에 부러움과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밥이 될 수 없는 존은 밥의 노래처럼 그저 자기 길을 가기로 한다. “주저앉아 이유를 찾아도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모르는 거라면, 두 번 생각하지 말아요, 괜찮아요(Well, it ain’t no use to sit and wonder why, babe. If’n you don’t know by now.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영화 번역가

## 社 說

### “즉시 단일화” 약속 번복 金, 정치력 부족 韓, 허를 차게 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7일 후보 단일화를 놓고 담판 회동을 했지만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 직후 김 후보는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고 했고, 한 후보 측은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나흘 앞두고 1시간 이상 마주 앉았으나 단일화 시기·방법은 고사하고 다시 만날 계획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회동 직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단일화 관련) 입장을 확고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11일을 넘기면 한 후보도 단일화가 돼도 국힘 기호인 ‘2번’과 국힘 선거 자금을 쓸 수가 없다. 김 후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김 후보 측은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한 후보가 ‘무소속 출마는 안 한다’고 밝힌 만큼 11일이 지나면 두 사람 단일화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법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의 이런 해명을 믿을 사람은 적을 것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 날 고등법원은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랬던 재판부가 돌연 재판을 연기한 것은 민주당의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압박 때문일 것이다.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법원에 이 후보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파기환송심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후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7개월을 끌었다. 진작 끝나야 할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입법 권력의 압박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 신속한 단일화를 공언하며 당원들 표를 얻었다. 그런데 후보가 되자 “일방적 단일화 진행 요구에 유감” “당 지도부는 단일화에 개입 말라”고 했다. 사실상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한 후보도 단일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정치력 부족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지도부가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단일화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지금 보수 후보들은 지지율을 다 합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미치지 못한다. 단일화를 넘어 국정·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도 유권자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한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인지 우려와 걱정을 함께 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단일화는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허를 차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연속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후에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 법들이 실행되면 살인, 뇌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합리적 우려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에 상관없이 오는 14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핵 위협도 모자라 청문회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력 후보와 입법 권력은 사법부를 위협하고, 사법부는 예비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지 이 후보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들도 군사작전처럼 처리했다. 놀라운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다.

### 아직 원인 못 찾은 SKT 해킹 “보안 넘어 안보 문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발생 19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보안 영역을 정보기술(IT)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보안을 넘어 국방, 안보,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유심(USIM·가입자 인증 장치) 정보 일부를 탈취당했다.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내 최대 통신사의 해킹 사고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다. 당초 사고 원인은 SK텔레콤의 홈가입 서버가 악성코드 4종에 감염된 탓으로 알려졌는데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악성코드 8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킹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내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고객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조사는 1~2개월가량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모바일 혁명은 우리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그에 비해 디지털 범죄도 늘고 있다. 비단 개인의 정보 유출을 넘어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작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번 해킹 사고를 계기로 ‘IT 보안은 곧 안보’라는 자세로 디지털 보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방 및 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해킹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침해 사고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럴 경우에도 빠르게 추적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경보 체계를 활용해서 해킹 사고의 경우에도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도 이번 기회에 보완해야 한다. ‘초연결’의 디지털 사회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 쌍권총 나서면 될 일도 안돼

## 전권 끝까지 맡겨라! 김문수·한덕수에게 ... 빠져라! 권영세·권성동

쌍권총(탄창 부재), 국힘 내 대표 웰빙인파 김무성·유승민 수괴인 탄핵찬성-방조파 일원 그들과 결 다른 인생 김·한의 결단에 맡겨야



《쌍권총》은 가라 김문수-한덕수(가나다순) 첫 담판이 있었다. 결론은 없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김문수는 권영세-권성동의 《후보 교체》 의도를 간파하고 이에 격분했다. 당연히 그럴 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김문수 후보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① 시간이 없다는 사실. ② 단일화가 지체될수록 이재명 대통령 될 확률은 높아진다는 사실임. 한덕수도 이 간단한 산술을 모를 리 없을 터.

그래서였다? 김문수는 7일 저녁 6시에 한덕수를 만났다고 했다.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단일화 작업에 《쌍권총》은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맞다. 《쌍권총》은 빠져야 한다.

### 양다리 걸치기 대명사 권영세-권성동

원래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당권은 후보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쌍권총》도 이를 알긴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당 안팎의 무엇을 믿었기에 김 후보 측에 의하면 후보를 한덕수로 바꾸려 획책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당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무성-유승민-이준석-한동훈-쌍권총으로 상징되는 흐름이 계속 있었다. 이들은 정통 자유-보수-우파보다는 자칭 《중도-개혁보수》란 이름의 성장임을 자임했다. 이들은 전통적 보수를 《골통》이라

는듯 취급했다. 당 밖에도 그런 성향과 논조(論調)들이 유행했다. 《강남 좌파》 흐름이다. 좌파가 판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또는 영합하려는, 알뜰한 처세법이자 《사는 법》이었다.

이 양다리 걸치는 방식은 현실 정치에선 《탄핵 찬성파》로 작동했다. 우파 대통령을 두 번씩 탄핵했다.

### 이타주의 대명사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쌍권총》으로 상징되는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의 후보 교체 기도를 눈치채고 이에 저항한 것이라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자유인의 간절한 여망 《단일화》를 도모할 시간이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김문수 / 한덕수》가 이런 꼴을 자초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김문수 / 한덕수》 두 인물들에게 타락한 정치인들에게 서 바운 《탐욕》이 없다고 우리는 알아왔다. 이 애정을 《김

문수 / 한덕수》 두 인사는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그들은 또 만나라. 그리고 합의하라. 단일화의 신속한 로드맵을 만들라. 그리고 전체 자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선물하라. 《우리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외쳐라!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은 평생을 이타주의(利他主義)로 일관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평생 공무원의 분수(分數)를 잘 지켜왔다. 이런 그들이기에 그들의 만남이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 우리는 믿으려 한다.

가자, 단일화로! 막아내자, 이재명 집권을!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5월 7일 게재 되었습니다.